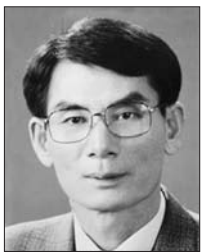


이정량의
古典探究



言論人(中國古典 研究家)

환공이 자주색 옷을 싫다고 하다 (桓公惡紫)

이름 난 사람, 요즈음으로 말하면 스타를 숭배하여 그들의 행동거지나 의상 등을 흉내 내는 것은 인간 행위의 보편적 현상이다. 따라서 지도자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늘 일종의 영향력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부하들을 지도하기 위해 지도자는 그들에게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느냐는 결코 지도자 개인의 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때때로 자신이 통치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제나라 환공이 자주색 옷을 좋아하자 온 백성이 그를 흉내 냈다. 환공이 이를 막으려 하자, 관중(管仲)은 내일 아침 조회 때 여러 군신들 중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 옷이 보기 싫다고 말씀하시라고 일러주었다.

백성들은 환공이 자주색 옷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자주색옷을 입는 사람이 없었다. (‘한비자’ ‘외저설 外儲說’.)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안자춘추 晏

子春秋’ ‘內篇雜下’에도 실려 있다.

기원전 547년, 제나라 영공(靈公)이 즉위한 후 궁녀들 사이에 남자 복장이 유행하자 제나라 부녀들이 모두 그것을 흉내 내기 시작했다.

영공은 담당관에게 그러한 유행을 금지시키라고 말하면서 “남자 옷을 입은 여자를 발견하면 입고 있는 옷을 벗겨 찢어버려라”고 엄명했다.

그러나 그런 강경 조치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루는 영공을 찾아온 안영(晏嬰)에게 어쩌서 여자들이 남자 옷을 입는 유행이 근절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안영은 궁중의 유행을 먼저 금지시키면 바깥 부녀들도 더 이상 남자 복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영공은 그 말에 따라 궁녀의 남자 복장을 금지 시켰다. 글부터 한 달이 채 안되어서 민간 부녀들도 더 이상 남자 옷을 입지 않게 되었다.

‘한비자’ ‘이병 二柄’에는 “초나라 영왕이 가는 허리를 좋아하자 나라에 굶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일 까지 일어났다.”는 기록도 있다.

‘의림 意林’ ‘관자 管子’에도 이와 비슷

한 기록이 있다. “초나라 왕이 가는 허리의 여자를 좋아하자 미인들이 먹지 않았고, 오나라 왕이 검술을 좋아하자 사람들이 목숨을 가볍게 여겼다.”(‘한비자’ ‘이병’에도 같은 기록이 보인다.) 이런 예들은 한결같이 윗사람이 좋아하는 대상은 아랫사람이 더욱 좋아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

남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은 그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작용을 미친다.

‘환공오자’는 말하자면 소리 없는 통치 명령이라 할 수 있다.

환공·영공·영왕은 제왕이라는 통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고, 관중·안영이 오히려 그 오판함을 깊이 인식했다.

현대인 들이 볼 때 이는 매우 보편적인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것을 일종의 통치 예술로 인식하기까지는 역사상 상당히 오랜 인식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환공오자’는 현대에 이르러 더욱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社 說

체감하는 성과내야 ‘사람중심 경제’도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새해에는 민생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취임 이후 줄곧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지만,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경제성장률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경제활력 제고’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매달리기보다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가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 같다.

보통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것도 의미가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초청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은 테이블에 자리한 것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신년회 장소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선택한 것이나 경제단체장뿐 아니라 유력 경제인들을 초청한 것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흐름을 미리 짚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활력을 높이

는데 방점을 둔다고 해서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이번에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강조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해왔지만,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경제정책 브랜드인 ‘소득주도성장’을 접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기조 아래의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는 있어도, 기조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이런 뉘앙스가 잘 묻어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함께 잘 사는 쪽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일은 꼭 가야 하는 길이지만 시간이 걸린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필요도 있다. 몸매 뺀 인식을 바꾸기도 힘들고, 과정엔 부작용도 따른다. 일종의 전환의 고통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경제체질 바꾸기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긴 안목으로 끌고 가기 위해 호흡을 고르는 일이다. 민생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 중심의 경제’ 목표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말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확실한 실적으로 답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과감한 규제개혁과 속도감 있는 투자유인 정책을 내놓고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독자 기고

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비상구 확인’

겨울철은 난방용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건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평상시 갖고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바로 무심결에 지나치기 쉬운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이다.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녹색바탕에 흰색 무늬로 사람이 달려가는 듯한 표시로 출입문과 비상구에는 ‘피난구 유도등’, 복도에는 ‘통로 유도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유도등은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구를 통해 피난 층으로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고마운 표지판이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해 패닉상태에 빠지기 쉽고 비상구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화

재가 난 곳의 반대편으로만 대피하려고 한다.

만약 다중이용시설에 들어설 때 비상구를 확인하고 본인이 위치한 곳까지 유도등을 따라 들어가는 습관을 갖는다면 당황스럽겠지만 조금 더 침착한 판단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비상계단으로 대피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상구를 막아놓거나 장애물을 버려두는 행위는 화재 시 대피로를 차단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일부 영업주는 도난 및 보안을 이유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해 놓아 비상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는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1회 50만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300만원)하게 되어 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두 감시·감독자가 되어 사전에 위험요인을 없애고 영업주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야겠다. 국민 스스로도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비상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물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영업주의 자발적인 소방안전관리 준수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민과 소방당국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태문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독자 기고

겨울철 축사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지난 8월31일 새벽 전남 나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나 36억 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겨울철 축사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축사시설은 누후된 전기시설과 가연성 보온재 사용 등으로 인하여 화재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들의 자율안전의식이 크게 강조되는 시설이다.

축사화재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전기,

불티, 담뱃불 관련화재가 주로 많으며, 건축물도 불에 취약한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로 화재가 순식간에 확대되어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전기, 가스 등 화기 취급시설 안전사용과 보온재 등의 불연성 제품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축사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풍기나 보일러 등 전기시설 사전점검과 노후된 전선의 즉시교체, 정격 퓨즈 및 규격전선을 사용하도록 하자. 또한, 전기, 가스, 응집, 흡연 등 화기취급시에는 소화기를 근

접 배치하고 인근 가연물에 불티가 연소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가연성 보온재 대신 불연성 재료를 가급적 사용하도록 하자.

아울러, 축사 동별 일정한 거리 유지, 축사주변 가연물 제거 등으로 화재시 연소확대를 미리 차단하고 화재를 대비한 저수조 등 자체 소화용수 확보에도 관심을 갖는 등 겨울철 축사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

/선홍진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 장 김 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제갈대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온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안내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광안구청	국장대우	고훈석	010-9992-8212
광안	차장	고도경	010-3699-3804
동구	국장대우	서기만	010-4602-0708
남구	기자	이유빈	010-9632-5879
북구	부장	김정관	010-9464-2555
목포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신안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나주	국장대우	김동철	010-3604-2611
담양	국장대우	강종연	010-6297-7599
곡성	부국장대우	심섭섭	010-3608-2634
구례	국장대우	심건식	010-4624-0005
보성	국장대우	김용욱	010-3602-8103
화순	차장	남호경	010-3624-6785
장흥	국장대우	김정근	010-3601-3517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강진	차장	전운재	010-6221-3346
해남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장성	부장	정운섭	010-3640-6323
무안	차장	김수형	010-3648-0281
영광	차장	김 진	010-9221-0000
여수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순천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광양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고흥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함평	차장	박정오	010-5189-5639
영암	국장대우	김희선	010-3631-1617
완도	국장대우	유대성	010-5007-5983
진도	부장	한길준	010-8265-8848